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순창군, 코로나19 신속 대응

임실군, 중점·일반 관리시설 대상... 심민 군수, "마스크 방역 만전 기할 것"

임실군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관내 중점·일반 관리시설 총 1,1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임실군이 심민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임실군청 전 직원이 일제히 현장에 나가 관내 모든 음식점 등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및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현장점검에 동참했다.

이어 "동시다발적 시설점검으로 위반사례 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며 "군민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세 번째로 군민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을 위해 7,000만원을 들여 전 군민에게 마스크 6장씩을 무상 배부할 예정이며, 방역수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에는 휴·폐업 등 미운영 상태인 업소가 88개소,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5개소의 마중 사례가 지적됐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현행화하고, 지적업소에 대하여는 계도를 거쳐 급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과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소독제와 소독약이 부족한 업소에 대하여는 소독제와 소독약을 구입하여 배포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과 더불어 6개팀의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특정업종과 위반사항 반복지역에 대하여는 게릴라식 집중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은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일 2회 이상 환기 소독이며 식당과 카페의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우수'

올해 총 13개 인증 획득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코로나19 위기상황속에서도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의 혁신기관으로 인정받았다.

14일 군 청소년수련원에 따르면 2020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기(인성) 개발활동인 '너나들이'와 문화예술활동인 '예코백 만들기' 등 7개의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독창적인 당일형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6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획득한 프로그램은 코로

나19로 침체된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의 놀이와 활동으로 세상의 가치와 자유를 배우는 가치기반 역량 중심의 창의 혁신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추진한 '그린나래 더하기'를 포함한 6종의 당일형 인증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은 64종의 인증프로그램을 획득 보유하게 됐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 보행 안전 확보·도시가로망 정비

남원시가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해 운봉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신정대로, 새터 중로 개통에 박차를 가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접근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보행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된 운봉초-전통시장간 750m의 전선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각각 사업비용의 50%씩을 부담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신주, 통신주 등을 철거하며 보행 안전을 제공하고, 주민들과 운봉지리산허브밸리, 오토캠핑장, 트리아

우스 등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개선된 도시미관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021년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한 ▲교통대로 ▲호치길 ▲지리산 IC 진입도로 ▲가방밭길 등 5지구의 사업을 완료 개통할 예정이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용성로 ▲인월1길 등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10일 발생 이후 확진자 관련 1007명 검진 결과 전원 음성

순창군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발빠른 대처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창군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전북 480번 확진자 발생 이후 481번, 484번 등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은 확진자 감염경로와 동선 파악 후 밀접 접촉자 등 1,007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3명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격리중이다.

동선지역에 대한 방역소독도 마쳤다.

이에 군 보건의료원은 14일 응급실 정상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16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확진자 발생일인 10일에는 확진자와 접촉 우려가 되는 공무원들을 비롯해 군민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했다. 첫 확진자 발생으로 군민들의 문의전화와 빗발치며, 전화 응대로 일상업무도 처리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군은 안정적인 대응으로 군민을 안심시켰다.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재생산되자 매 시간 안내문자를 발송해 군민들을 진정시켰다. 또 확진자의

황숙주 순창군수는 14일 예정되어 있던 간부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는 전주나 광주 등 도시 출퇴근자들에 대한 재택근무에 돌입할 것도 지시했다.

또 지난 13일에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당부사항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 들도록 민과 관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10일 이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에 그 어느때 보다 신경써 달라고 언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 교육 진행

건강장수와 힐링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창군이 오는 30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그동안 추진했던 숙박·체험형 교육에서 탈피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노후준비교육'과 '바른식생활교육'이다.

수강방법은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순창 실버드 온라인 건강교육' 또는 홈페이지(Shikdo.co.kr)를 통해 노후준비교육, 바른식생활교육 온라인강의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면역이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방식인 온라인 건강교육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익히고 실천하여 각종 질병 예방에 국민 모두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겨울철 화재예방 전통시장 점포 점검

임실군은 임실전통시장에서 유관기관인 임실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가져

남원형 뉴딜사업 발굴·코로나19 방역 만전 등 당부

이환주 남원시장은 14일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을 갖고 12월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받으며 시정 마무리와 내년 도시사업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각종 외부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행되는 제도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임실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상인회 중심의 점포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와 화재 예방교육 및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화기 관리상태를 점검 하는 등 동절기 화재 예방에 총력을 펼쳤다.

또한, 실제 화재를 대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누수 없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임실=진총영 기자

이어 이 시장은 "2021년도 사업수립을 위해서는 '더 큰 남원'을 완성하기 위한 부서장들의 깊은 고민들이 수반되어 남원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2021년도 업무 방향을 잘 잡아달고 가야 된다"고 강조하며 "K뉴딜 등 정부의 방향성을 잘 숙지해서 남원형 뉴딜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적 차이가 성행하고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공공영역에서 더욱 철저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더욱 코로나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